여주는 400년 전 멸망한 루세타 왕국의 핍박 당하던 일국의 공주이자 사생아이다. 그녀와 남주는 마법사로 예정된 세계의 멸망(이때는 서쪽의 대마법사라고 생각했었음->남주의 전 스승임)을 막기 위하여 아카데미에서 키워지던 아이들이다.

질서선인 그녀는 평생 핍박만 당했으나 자신에게 친절을 베푼 스승님과 사랑하는 약혼자, 그리고 남주를 위해 멸망을 막고자 희생한다.

루세타 왕국은 오히려 그녀를 희생양으로 내몰며 끝까지 이기적인 태도를 취한다. 남주는 여주를 말리지만 여주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며 남주를 뿌리치고 희생당한다. 그러나… 여주가 희생당하는 마지막 순간 약혼자가 그녀를 배신한걸(바람? 도망감?) 알게되고 그녀는 순간 절망을 보아 멸망을 막지 못하고 혼이 갈기갈기 찢겨 죽게 된다.

이를 본 남주는 분노하여 멸망의 용으로서 각성, 예언대로 루세타를 멸망시키고 그 주변을 시간이 멈추게 만든다. 여주 혼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혼을 모으려고.

남주는 100년동안 루세타의 악신으로 군림하며 살아있는 것들을 모두 내쫓았다. 그리고 여주의 혼을 다 맞춘 마지막 순간 마지막 조각을 들고 고민한다. 이 조각을 맞추면 그녀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마지막 조각을 심연으로 봉인해두고 여주의 혼에 유리조각을 끼워 맞췄다.

그후로 다시 100년이 흘러 루세타 멸망 300년 후, 작중 시점 200년 전에 루세타의 시간 결계를 깨고 홀연히 대마왕으로서 자취를 감춘다. 여주를 데리고 루세타와 꽤 떨어진 마을 레테로… 남주는 레테의 한 집의 시간을 멈춰두고(레테의 괴담이 여기서 생긴 것) 여주를 잠재워놓았다.

그는 스승인 서쪽 마법사에게 부탁하여 중앙 귀족 자리에 여주의 자리를 만들어놨다.

그리고 작중 시점 20년 전, 다시 한 번 멸망의 예언이 도래했다.

남주는 내내 죽고싶어했으나 여주가 희생당하며 죽는 순간부터 살고 싶어했다. 그녀를 살리고 싶어했기 때문.

깨어나보니 기억을 잃은 상태. 자신을 여주의 약혼자라고 지칭하는 이가 수발을 들어준다. 여주는 시골 마을 레테에서 머물며 약혼자와 함께 천천히 자신의 기억을 찾아나가는 삶을 살고 있었다. 깨어나길 3년째,